美術史學硏究 第286號 2015. 6, pp. 31~58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정 은 우 **

Ⅰ. 머리말
Ⅱ. 복장물 관련 문헌 기록
Ⅲ. 고려시대 복장물목의 내용과 특징
Ⅳ. 경전에 의거한 복장물목의 구성과 요소
Ⅴ. 복장물의 형성과 의미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복장물이란 불상의 몸 안에 저장된 물건을 뜻하며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원은 육계 안에 사리를 넣는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93.3cm의 장육상인 일본 교왕호국사 천수관음입상(元慶원년경, 877)의 백호에서 나온 사리와 사리용기, 766년 경상남도 산청의 석남암수 석조여래좌상의 대좌 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하는 사리장엄구 들을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가장 이른 복장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불상의 몸 안에서 출토된 정확한 의미의 복장물은 북송대인 985년 청량사 목조여래입상에서 나온 사례가 가장 이르다. 우리나라 역시 복장물의 연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문헌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복장물도 이 시기부터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의궤와 문헌을 종합한 『造像經』이 편찬된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불교무형문화유산 학술보고서』(2014)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복장물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만큼 많은 사례와 각종 물목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복장물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의식과 의례적인 현대적 계승은 물론 후령통을 비롯하여 오약과 오향, 발원문 및 각종 경전, 다라니, 직물 등 수백 점에 해당하는 물목들은 한국 불교의 사상은 물론 왕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신앙 및 시대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복장물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불상 복장물의 구성이라든가 물목들 그리고 조상경과의 관계는 물론 그 시원과 역사적 성격까지의 고찰이 이루어졌다.[1] 고려시대 복장물의 형성과 물목 그리고 경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 복장물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복장물에 대한 고려시대의 문헌기록과 대표적인 복장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물목의 구성요소의 현황을 경전이나 의식과 연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복장물 관련 문헌 기록

복장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고려시대 부터로 李奎報(1168~1241)의 「洛山觀音腹藏修補文幷頌」, 閔漬(1248~1326)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權近(1352~1409)의 「釋王寺堂主毗盧遮那左右補處文殊普賢腹藏」등 세 건이 전한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른 기록은 『동국이상국집』의 「낙산관음복장수보문병송」이다. 이는 落山觀音상의 腹藏에 대한 내용으로[2] 이규보가 晉陽侯 崔相國[3]을 대신하여 지은 글이다. 그 내용은 낙산사의 관음보살

---

1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문예출판사, 2007), pp. 53-86; 이선용, 「불복장물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61(2009), pp. 77-104; 이승혜, 「고려시대 불복장의 형성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85(2015), pp. 71-100.

2 『東國李相國集』 卷25, 雜著, 「洛山觀音腹藏修補文幷頌」
代崔相國行今晉陽侯也云云.洪惟東海之濱洛山之上.有一勝境.淸淨無塵.水月眸相.於是乎寄焉.嗟乎.憬彼頑戎.無知莫甚.方其橫行寇掠也.至於佛宇梵相.無不被其殘毁者.我大聖尊軀亦爾.雖形體僅存.而腹中之珍藏.盡爲搜露散頓.枵然其空矣……迺金聞腹藏遺散之事.能不倍痛於人而勇爲之補理耶.是用挨舊所藏.謹備心圓鏡二事及五香五藥色絲錦囊等衆緣.以充其腹.完而復之.與昔無損(후략)

3 崔相國은 1234년에 晉陽侯로 봉해진 최충헌의 아들, 최우를 말하며, 이후 崔怡로 개명한 인물이다. 이규보는 1207년 최충헌의 도움으로 관직에 오를수 있었고, 최충헌, 최우를 위해 많은 글을 쓰는 등 친분관계가 높았다. 『高麗史』卷23, 世家 23, 高宗 甲午 二十一年 十月 冬十月 庚寅, 冊崔瑀, 爲晉陽侯. 1234년 겨울 10월 庚寅에 崔瑀를 冊하여 晉陽侯를 삼았다.

상에 복장이 있었는데 오랑캐에 의해 진기한 복장물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이에 옛 소장으로 미루어 삼가 心圓鏡 두 개와 五香, 五藥, 色絲, 錦囊 등을 갖추어 넣었다는 것으로 처음으로 복장물목의 내용이 밝혀진 중요한 기록이다.

「국청사금당주불석가여래사리영이기」는 석가여래에 오색사리와 불복장물을 안치하였는데 큰 영험이 있었다는 기록이다.[4] 내용 중에는 金像에 복장을 안치하려고 할 때 사리를 구하려는 내용과 사리를 설명하면서 '靑.白.玄.黃 赤의 오방색에 대한 언급 그리고 팔엽통에 나누어 담아 주존과 협시상의 복중에 안치하였으며, 1314년(延祐元年) 겨울 11월 12일에 절에 봉안하였다는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5] 『陽村集』제33권에 수록된 「석왕사당주비로차나좌우보처문수보현복장」은 釋王寺의 堂主인 毗盧遮那와 左右補處인 文殊·普賢에 腹藏하는 발원문이다.

> 安邊에 釋王寺가 있는데 … 옛날 지었던 堂主 비로자나만이 홀로 모셔지고 좌우의 補處가 없으므로 이에 다시 文殊와 普賢의 두 보살존상을 木造하였습니다. 外飾이 이미 장엄하니 中藏 또한 근엄해야 하므로 발원하는 생각을 글로 적어 腹中에 넣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발원 목적과 발원문을 복장물로 넣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왕사는 함경남도 안변군 문산면에 있는 절로서 1377년 이성계가 석왕사에 대장경을 봉안하였다거나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을 보이는 응진전 등에서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이성계에 의해 크게 중창된 사찰로 유명하지만 현재 비로자나삼존불은 없어진 상태이다.

복장과 납입한 목록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계속 등장한다. 태종9년(1409) 이천룡이 사노비가 도둑질한 동불의 복장인 綵緞과 眞珠를 받은 기록과[6] 세조6년(1460) 도적이 대자암에 들어 두 불상 속에 넣어둔 금·은·칠보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7] 그리고 성종18년(1487) 불상 등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服藏銀片眞珠明珀珊瑚樹' 등이다.[8]

---

4 『동문선』 권68, 記,「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5 腹藏諸物欲安置一物最難求舍利…收拾分盛八葉筒 納安主伴三腹中.

6 『태종실록』 권18, 태종9년, 10월 18일 병진조. "刑曹請檢校典書李天龍罪 天龍家奴盜銅佛鑄器皿 天龍知之 受其腹藏綵段眞珠 請依律科斷 從之."

7 『세조실록』 권7 세조6년 12월 정유. 도적이 大慈庵의 두 佛像의 腹藏을 훔쳤으므로, 명하여 都城門을 닫고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8 1487년(성종18) 12월 22일 정해의 기록에는 지경·박귀원·박은손 등이 불상 등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목록에 '服藏銀片眞珠明珀珊瑚樹 1'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服藏이라고 쓰여 있다.

이상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에 걸쳐 문헌에 전하는 내용을 통해 복장물 납입의 전통이 13~14세기에는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시원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장과 복장물에 대한 명칭도 정확하게 파악될 뿐만 아니라 문헌에는 매우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몸 안에 물건을 넣는 것은 '腹藏', 들어가는 물목은 '腹藏諸物' (또는 腹藏物) 그리고 안에 안치하는 행위는 中藏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不空(705~774)번역의 『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敎王經』 (이하 『금강정경』) 「大漫荼羅廣大儀軌品」에는 제자를 위해 설하고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 金剛形의 藏에 머묾을 마음 속에서 관해야 하느니라 관하고 나서 地에 머물면 곧바로 **伏藏**을 보게되리라 금강저의 모습을 관하고 나서 허공을 두루 관찰하라 만약 떨어지는 곳에 따라가 보면 그 곳에 바로 **伏藏**이 있느니라.. 금강저 모습의 모든 것을 자신으로 관해야 하느니라 편입해서 그 곳에 떨어지면 그 곳이 바로 **伏藏**이니라

라고 하여 감추고 저장하고 숨긴다는 의미가 함축된 伏藏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腹藏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경전상의 伏藏에서 나온 단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마음 속에 관하여 복장을 본다는 이 숨은 뜻은 감추고 숨는 곳이 부처님의 배 안이므로 구체적인 성소인 腹을 지칭하여 腹藏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아닐까 한다. 이게 맞다면 고려는 중국과 일본 보다 경전에 입각한 정확한 명칭을 처음 사용한 나라가 된다.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장물의 내용이다. 즉 복장발원문과 心圓鏡, 五香, 五藥, 色絲, 錦囊 그리고 靑·白·玄·黃色의 오방색과 사리를 담은 八葉筒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銀片, 眞珠, 明珀, 珊瑚樹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석으로 은, 진주, 호박, 산호 등을 넣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장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外飾이 이미 장엄하니 中藏 또한 근엄해야 된다'든지 '석가여래에 오색사리와 불복장물을 안치하였는데 큰 영험이 있었다' 라는 글을 통해 복장의식의 장엄함과 근엄한 복장물 납입 전통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복장 안치에 영험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복장물을 넣는 행위에 거는 당시 사람들의 목적과 심리도 이해된다. 영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복장물을 훔쳐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도 짐작된다.

Ⅲ. 고려시대 복장물목의 내용과 특징

1. 고려시대 복장물 사례

고려시대에는 문헌기록과 더불어 불상의 몸 안에 넣은 복장물이 실제 등장하는 시기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복장물이 나온 사례는 약 10여구 정도 된다. 즉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01~1302), 관음사 금동관음보살좌상(1330), 문수사 금동여래좌상(1346), 장곡사 금동여래좌상(1346) 등은 복장물이 나온 14세기의 대표적인 불상들이다. 이외에도 자운사 목조여래좌상(14세기),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이 있고 금동불로서는 1283년 은제아미타삼존불좌상(삼성미술관 리움)이 있다.[9] 13세기로 판명된 최근에 개봉된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목조보살좌상은 가장 이른 복장물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쉽게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며, 해미 개심사 목조여래좌상의 경우 내부에 복장물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경기도 안성 청원사와 개운사 불상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복장물이 공개된 상태이다. 이 가운데 문수사와 안정사 불상만이 처음 봉안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며 나머지 불상의 경우 훼손되거나 이미 열려진 상태에서 수거되었다. 장곡사 불상의 복장물은 개봉된 이유와 그 이후의 상태가 정확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이 현재 남아 있다.

현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복장물은 1301년(大德5)의 昌寧郡夫人 張氏의 鑄成彌陀腹藏入安發願文이 나온 중요한 자료이다.[10] 복장물은 총 265건(267건 중 2건 분실)이며, 크게 후령통, 발원문, 다라니, 복식과 직물류, 곡물류 등으로 구분된다. 복장물 중에는 높이 4.3cm, 윗지름 6.3cm의 은제합과 지름 6.4cm의 뚜껑으로 이루어진 喉鈴筒이 있다. 은제합 외부에는 사방에 주서로 쓴 범자가 써져있고 안에도 범자가 적혀 있는 백색천, 청색천 등이 붙어 있으며, 뚜껑에도 오방을 상징하는 범자가 적혀 있는 등 진심종자와 오륜종자가 잘 남아 있다. 이외에도 범자가 써져 있는 은제양면원경이 있다. 합 모양의 후령통은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1346)에서도 발견되었다. 다만 온양민속박물관 복장물의 후령통이 금속인데 반해 문수사 불상의 후령통은 재질이 나무이고 표면에 연꽃잎과 연밥이 표현되어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다라니는 크게 금강계만다라와 태장계만다라,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

---

9 정은우, 「1383년명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물」,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6(2011), pp. 11-33.

10 온양민속박물관 편,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硏究』(온양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 (계몽사, 1991).

니 등이다.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는 至元 29년(1292)에 개판되었으며, 태장계만다라 중에서는 '大德五年十一月日', '山人小丘刀'라는 조성연대와 각수가 적힌 예도 있다. 이외에 다수를 차지하는 직물류는 옷 3점, 주머니 5개, 오색실과 220여편의 직물조각이다. 3점의 옷은 紫衣, 中衣, 上衣로 그 형태를 통해 조선조에 발견된 복식과의 그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복식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된다. 직물 조각은 크게 마직물과 견직물로 나뉘며, 꼬임방식에 따라 세분화된다. 직물 조각은 크기가 다양하며, 대부분 小圓形曼荼羅가 찍혀있다.[11]

두 번째는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물로서 현재 불상은 도난되어 복장물만 남아 있지만 1973년 불상을 조사하면서 처음 봉안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된 최초의 복장물이다. 불상 밑에서부터 비단직물(견사류)이 나왔고 그 위에 발원문 등 문서류(배), 그리고 목합(가슴 7×6.5cm), 후령(목) 순서로 출토되었으며 빈 사이는 다라니로 메꾸어진 상태였다. 목합에는 오보병과 사리통, 사리, 건반, 심주 등 외부에 팔엽연화가 그려져 있고 합 상부에 연자 주서. 오보병과 종자, 건반이 나왔으며, 사저교직답호가 함께 나왔다. 목합에서는 황색주(55.7×27.9cm)– 황백색운요문라– 녹황색소문라(47.5×48.7)–남색주(52×51)–황백색(소색)생초(53.6×49.5)가 발견되었다. 경전류에는 고왕관세음경과 각종 진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대진언(목판본, 18.2×54.7), 연화판다라니, 범자원권다라니, 단온진언, 불정방무구광명다라니, 차인출불공역대화수경 등이다. 복장물 가운데 나온 〈彌陀腹藏入物色記〉는 한지에 묵서로 복장물목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열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도 1).

도 1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물의 입물색기, 고려 1346년, 수덕사 근역성보관

이외에 1346년명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은 1960년대에 조사된 복장물로서 발견 당시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다.[12] 거의 10m에 이르는 홍견묵서발원문

11 이 직물들은 문양과 제작방식에서 송, 원대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수입품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모방한 국내품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온양민속박물관편, 앞의 책(1991); 온양민속박물관편,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계몽사,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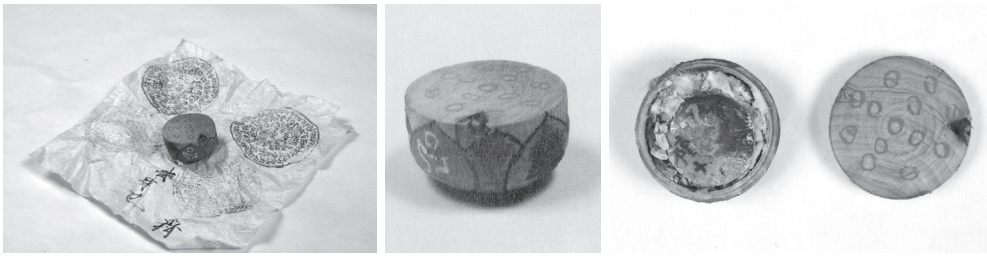
12 민현구,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14(1966), pp. 237–247.

(49×1015cm)에는 수 백명의 시주자 이름이 열기되어 있으며, 한지에는 '至正六年丙戌七月初八日誌謹書'라는 조성일이 주서되어 있다. 조사 당시에는 은합(상부구경 9cm, 저부 5.5cm, 높이 6.5cm)이 황초폭자와 다섯가지 색의 綃帛에 싸여 있었고 190cm 길이의 오색사에 묶여져 있었다고 한다. 황초폭자에는 '藥師同願'이라는 명문과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은합에는 외면 사방에 방위를 나타내는 범자가 주사로 쓰여 있으며 뚜껑 윗면에는 진심종자가, 뚜껑을 열면 그 아래 양면원경이 있으며, 은합의 안쪽 면에는 2cm 정도의 흑색綃를 붙이고 그 위에 唅자를 주서하여 각 면에 오륜종자를 표시하였다. 은합의 내부에서는 찹쌀을 쪄서 말린 건반과 그 밑으로 무공수정1, 赤黃綠 3條, 황, 적, 감, 백, 녹색의 오색綃帛을 접어 만든 주머니인 오보병(크기 약 3.5, 너비 2cm)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황색과 녹색의 크기는 11×15cm 정도되고 그 안에 백지가 있었으며 다시 그 안에서 수정, 구멍이 있는 호박, 종자 등이 들어 있었다. 현재 황초폭자를 제외한 은합과 그 내부의 오보병 등은 확인되지 않지만,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은합과 그 형상에서 매우 비슷하다. 은합이라는 재질은 물론 오색의 천에 쓰인 오륜종자, 뚜껑에 쓰인 진심종자의 표시도 닮았다. 따라서 현재는 없지만 전체적인 형태의 유추는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물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사찰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도 2-1, 2-2).[13] 이 불상은 22cm의 크기로 바닥면에서 "四十二惠威燈光佛"이라는 묵서가 발견되었다. 비교적 작은 불상이지만 복장물의 순서와 배치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인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복장물의 순서는 목합을 싼 다라니 뭉치-발원문-천- 목합을 싼 다라니- 후령을 싼 비단천- 목합-은제뚜껑- 중방원경- 색사 등으로 놓여 있었다고

도 2-1 안정사 금동여래좌상과 복장물, 고려, 경상북도 통영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13 통영 안정사 불상은 밑면의 복장공을 막았던 나무 안쪽 면에서 1976년의 문광부 소인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당시 밑면을 개봉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의 복장물 상태로 보면 복장물은 꺼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정수복장」,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p. 20-21.



도 2-2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의 목합(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한다.[14] 작은 불상이어서 인지 경전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목조보살좌상 복장물에서는 황초폭자에 쌓인 오보병이 발견되었으며(도 3),[15] 머리부분에서 실뭉치와 금속제를 싸고 있던 대수구다라니경이 발견되

도 3 목조보살좌상과 오보병, 고려(국립중앙박물관 제공)

14 불상에 대해서는 정은우,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2010), pp. 47-48; 복장물은 이용윤, 앞의 논문, pp. 20-21.

15 국립중앙박물관 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국립중앙박물관, 2014), pp. 78-107.

었다. 그리고 1388년의 중수기문과 1611년의 중수원문이 나온 자운사 목조여래좌상이 있다. 여기에는 목제후령통, 여의보인대수구다라니범자군다라상(1184년 2월 중원부에서 간행), 삼신진언 다라니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2. 특징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복장물을 소개하였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시대에 이미 복장물목과 납입순서가 정해져있었다. 고려시대 복장물이 나온 불상 가운데 납입순서가 정확하게 나온 사례는 가장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개봉한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이다. 바닥면의 나무로 고정되었던 내부가 공개되었는데(도 2-1), 복장물의 순서는 맨 밑에 다라니, 그 위에 발원문, 오색직물, 한지에 쌓인 목합(팔엽통)과 목에서는 천에 싸인 후령이 차례대로 나왔다. 불상의 심장부에 놓인 목합은 한 장의 다라니에 싸여진 채 나왔는데 목합 표면에 팔엽과 사방주(범자)가 그려져 있고(도 2-2) 내면에도 범자와 더불어 방형의 청색천, 삼각형 주황색천, 원형의 백색천, 반원형 남색천 등 오륜종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안에서 원경과 오색사 그리고 오보병이 출토되었는데 현재 오방색의 천은 많이 퇴색된 상태이며 벼가 따로 발견되었고 오보병은 해체하지 않은 상황이다.[16] 또 무공심주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방위와 색채, 납입 순서 등은 고려시대에 정형화된 듯 안정사 불상만이 아니라 문수사, 장곡사 불상의 경우 대체로 유사하다고 보고된바 있다.

복장물목은 불상의 심장부에 오보병을 넣은 팔엽통(사리합)을 안립하는데 이로서 불상은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고 眞像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오륜종자와 진심종자를 그리거나 적으며 안이나 바깥에는 1302년 온양민속박물관 복장물이나, 1346년 문수사와 장곡사 불상, 안정사 불상과 같이 방형(동), 원형(서, 중앙), 삼각형(남), 반달형(북) 오보경을 오방색과 함께 직물로 만들어 붙이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목조보살상과 같이 금속으로 만들어 납입하기도 한다. 이 형식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일반화된다.

오보병에 들어가는 물목에 대해서는 1346년 제작된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에서의

16 이용윤, 앞의 논문, pp. 16-28.

〈彌陀腹藏入物色記〉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한지에 묵서로 각 물목이 쓰여 있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입물색기에 적힌 물목은 다음과 같다(도 1).

> 靑木香 藿香 枕向 乳香 丁香 符子 荷子 人蔘 甘草 桂心 琉璃 琥珀 眞珠 生金 生銀, 大黃 小黃 牛黃 雌黃 雄黃 心鏡 心珠 喉鈴 五色帛 五色絲15尺 乾飯 五穀 黃幅子 舍利同 八葉同 靑花, 大靑, 大綠, 朱紅, 黃漆, 南粉, 漆, 阿膠

즉 오향(靑木香 藿香 枕向 乳香 丁香), 오약(符子 荷子 人蔘 甘草 桂心), 오보(琉璃 琥珀 眞珠 生金 生銀), 오황(大黃 小黃 牛黃 雌黃 雄黃), 건반과 오곡 그리고 심경과 심주, 후령 등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다섯가지 비단과 실, 안료와 접착제의 명칭이 적혀 있다. 이 중 다섯가지 향과 약, 황, 보석, 오곡 등 모두 오방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위의 물목이 완전하게 나온 고려시대의 복장물은 없다. 오향과 오황의 물목은 그대로 조선시대 흑석사 목조여래좌상 불상에 똑 같이 명기된 한지에 싸인 물목이 발견되어 이 전통이 그대로 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향은 당시 매우 귀한 것으로 고려 성종2년 최승로가 죽은 후 이를 슬퍼하여 乳香 200냥을 賻하였다는 내용에서 유추해 보면 향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고 생각된다.[17]

오보는 〈입물색기〉에 '琉璃 琥珀 眞珠 生金 生銀'으로 밝히고 있으며, 건반과 오곡을 명시하였다. 오보에 대해 『다라니집경』에는 수정과 산호를 포함하여 칠보로 언급하였으

표 1 고려와 조선의 오보병물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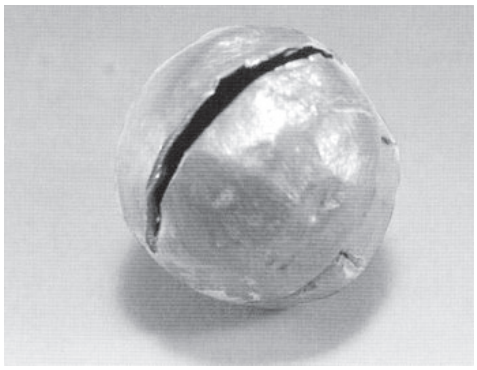
작품명	오향	오약	오황	오보	오곡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1346)	靑木香, 藿香, 沈香, 乳香, 丁香	符子, 荷子, 人蔘, 甘草, 桂心	大黃, 小黃, 牛黃, 雌黃, 雄黃	琉璃, 琥珀, 眞珠, 生金 生銀	乾飯, 五穀
흑석사 목조여래좌상 (1458)	木香, 藿香, 沈香, 乳香, 丁香	符子, 荷子, 人蔘, 甘草, 桂皮(桂心)	大黃, 雌黃, 雄黃		五穀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502)	白檀香	人蔘		琉璃, 水晶	麻子, 稻穀, 豆, 靑介子

17 『高麗史』 권93, 열전 崔承老

며, 오곡에 대해서는 '대맥, 소맥, 도곡, 소두, 호마', 『금강정경』 4권에는 '稻穀, 綠豆, 豆, 油麻, 小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곡에 대해서는 흑석사 불상에서도 오곡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1575년 용처사본 조상경이 편찬되는 시기에 오곡의 종류가 정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입물색기〉의 마지막은 靑花, 大靑, 大綠, 朱紅, 黃漆, 南粉, 漆, 阿膠이다. 즉 청색(청화, 대청), 붉은색(주홍), 녹색(대록), 흰색(남분)이며 황칠은 황색, 칠은 검은색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채색안료는 오방색에 해당되며 아교는 접착제를 말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목조보살상에서 나온 오보병이 중앙에 황색의 금이 칠해져 있고 동서남북은 모두 칠이 칠해졌지만 동쪽 병에서는 녹색이, 남쪽에서는 붉은색으로 칠해졌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도 3)[18] 즉 오보병 중 4병이 모두 흑칠이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황칠은 중앙의 황색에 사용되는 색채로서 금을 대신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입물색기〉에는 후령, 팔엽통, 사리통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팔엽통에 대해서는 〈국청사 금당주불석가여래사리영이기〉에서도 등장하는 복장물이다. 고려시대에 복장물에 나오는 팔엽이 그려진 목합을 보면 주사로 팔엽을 그리거나 채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후령은 목구멍이 있는 방울이라는 뜻으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 까지만 등장한다. 15세기말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 나온 후령통은 후혈이 등장하면서 후령이 따로 나온 사례이며(도 4, 5), 17세기 법주사 불상에서 나온 후령통은 합 형태에 후혈이 있는 형태이다(도 6). 조선후기 이후 후혈이 있는 후령통으로 변하면서 목에 있던 후령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후령이 후혈로 대신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시대 조상경에 등장하는 후령통은 전면에 후혈이 있는 것으로 원통형 기물 위에 팔엽연화가 올려진 형태로



도 4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후령, 조선

도 5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후령통, 조선

[18] 국립중앙박물관 편, 앞의 책(2014), pp. 78–94.

도 6 법주사 불상 후령통, 조선

서 17세기 조상경의 출간과 함께 후령통으로 정립되어 현재에 이른다.

2. 복장물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발원문이 포함되는데, 권근의 〈석왕사비로자나삼존불복장기〉에 이미 원문에 대한 언급이 있어 복장물 안립 시기부터 발원문을 넣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문은 고려시대에는 직물에 묵서로 쓴 경우가 많으며 장곡사 불상의 예처럼 길게는 10m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이 비단 위에 서원을 적고 이어서 시주자 각 개인의 이름을 쓰는데 때로는 수결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복장과 관련된 내용 보다는 시주자의 이름을 쓰는 행위가 우선되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복장과 관련된 시주질, 화원질 등이 정례화 됨에 따라 화원, 증명 등 불상조성과 관련된 인물 그리고 시주자와 시주품목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지에 묵서가 많아지며 왕실 불사의 경우에는 물을 들인 직물에 발원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3. 마지막은 다라니 납입의 유행이다. 모든 복장물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라니가 수십장에서 수백장에 걸쳐 납입되어 있어 우리나라 복장물의 특징을 이룬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다라니는 대수구다라니, 보협인다라니경, 범서총지집, 1184년 범자군다라상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불복장물에 다라니를 납입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탑공덕경으로 보협인다라니의 공덕을 설한 『一切如來寶篋印陀羅尼經』(이하 『寶篋印陀羅尼經』)에는 '이 법요와 다라니를 탑상 속에 안치하면 우리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그 방처를 항상 따라 다니면서 모든 때에 신통력과 서원력으로 가지하고 호념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즉 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으며 또한 불탑 만이 아니라 불상에도 안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19] 실제 발견된 보광사 불상의 1007년 보협인다라니경 권수에는 '佛塔中供養'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도 같은 경전이 월정사탑에서 나온 바 있다. 이외에도 다라니에 대한 언급은 의식 관련 밀교경전에 언급되어 있다. 『大法炬陀羅尼經』은 다라니의 뜻과 그 공덕을 설한 경전이며, 같은 계통인 『다라니집경』은 모두 12권 21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다라니를 설하는 내용이다. 즉 1,2권은 부처에 관계된 다라니, 3권은 반야바라밀다대심경을 통해 반야바라밀다보살에 설한 다라니,

19 김추연, 「한국 탑내 봉안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14), pp. 42-44.

4~6권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다라니, 7~9권은 금강신들과 관계된 다라니, 10권은 천신, 12권은 의식과 수반되는 다라니이다.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모든 의식에는 진언이 송해지며 이에 따른 많은 다라니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복장물에 납입됨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Ⅳ. 경전에 의거한 복장물목의 구성과 요소

이상에서 살펴 본 복장과 그 물목들의 형성과 배경을 경전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문헌기록과 현존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후령, 팔엽통, 사리통 그리고 그 안에 납입하는 오향, 오약, 오황 그리고 오보병 등이 중요하게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물목들은 경전에 등장하는 사찰도량의식에서 사용하는 물목과 유사성을 보인다. 즉『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하『대일경』) 제2권「入漫荼羅具緣眞言品」에는[20] 만다라를 중심으로 한 실천수행법으로서 7일작단법으로 지니고 봉헌해야하는 향들 塗香(丁香), 苜蓿香, 沈水香, 松香, 白檀香, 膠香에 대해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음식과 과일, 등촉, 번개를 바치고 迦羅奢를 갖추는데 이는 만다라의 제존에 공양하는데 사용하는 甁을 말한다. 또한 보배와 약을 준비하도록 이르고 있다. 이어서 '중앙에는 법계의 불가사의색을 나타내고 네 가지 보배로 만든 병에는 수많은 약과 보배로 채워라' 라고 설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이 金剛智 번역의『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3권(이하『금강정경』)에도 등장한다. 3권은 만다라를 건립하는 방법과 작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가운데 '..다음에 수승하고 묘한 金甁을 사용하거나 또는 銀甁에 온갖 보배와 妙香藥을 채우고 물에 섞어서 가득 담는다. 좋은 나뭇가지로 병 가운데를 누르고 그 입구 위를 갖가지 과자와 온갖 이름난 꽃으로 엄식한다. 다시 도향으로 바르고 다양한 색깔의 비단으로 그 병의 목을 묶고 갖가지로 장엄하고 나서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이 병을 보호해야 한다. .네 모퉁이와 들어가는 문에 각각 한 병을 둔다' 라고 하였다

즉 중앙과 네 가지 보배로 만든 병은 오보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보배로 만든 병은 조상경에 등장하는 백색수정보병(중앙, 백색, 원형), 청색마유보병(동, 청색, 방형), 홍색산호보병(서, 홍색), 황색마니보병(남, 황색, 삼각), 녹색유리보병(북, 녹색, 반원)과 비교된다. 그리고 병 안에 수 많은 약과 보배로 채우라는 내용 역시 오보병 안에서 발견되는 오

[20] 경전 내용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한글대장경를 이용하였다. (http://abc.dongguk.edu/ebti/)

곡, 오향, 오보, 오약 등과의 유사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찰 도량의식과 관련되어 의식에 사용하는 많은 물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한 경전으로 『佛說陀羅尼集經』(이하 『다라니집경』) 12품 「佛說諸佛大陀羅尼都會道場印品」에는 도량의식을 베풀면서 의식과 물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작법할 때는 각각 오곡과 일곱가지색의 향과 대추크기만한 웅황을 넣은 다음에 다섯 개의 병 가운데에 각각...
>
> 결계한다. (중략) 점을 찍은 곳에 깊이가 일걸쯤 되게 작은 구멍을 하나씩 파야하니, 7보와 오곡을 묻을 것이다. 칠보란 금, 은, 진주, 산호, 호박, 수정, 유리이니 이들을 칠보라고 이름한다. 오곡이란 대맥, 소맥, 도곡, 소두, 호마이니 이를 오곡이라 이름한다. 그 보배 등을 부수어서 오곡과 섞은 다음 비단조각으로 싸서 오색줄로 끝을 묶고 다섯 개의 구멍 속에 묻는다. 그리고 땅 밖에 그 줄 끝을 5지쯤 내 놓아라 이 보물 등은 한번 넣은 다음에는 영원히 꺼낼 수 없다. (중략) 이어서 다시 결계를 한다.
>
> 다섯째날 진언을 송한 동아줄을 만들고 비단조각으로 7보와 오곡을 한 곳에 싸서 오색줄로 그 꼭대기를 단단히 묶되 또한 사람 수에 맞춘다. (중략) 그리고 아사리는 단에 들어간 두 세명의 제자들과 한밤중에 오색가루를 단 안에 뿌려서 그 땅을 장엄하는데 그 법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안으로부터 백색가루를 뿌리고 차례로 황색가루, 적색가루, 청색가루, 흑색가루를 뿌린다. 다음 곧 외원에 이르러 동북 모서리로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색가루를 앞에서의 작법과 같이 뿌린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은 도량결계를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식에서 칠보와 오곡을 비단에 싸서 오색줄로 묶는 방식은 복장물의 황초폭자에 후령통을 싸는 방식 그리고 오색줄로 묶는 것 까지도 비슷하다. 오색줄은 〈입물색기〉의 오색사를 의미하며 이는 후령통의 오방색으로 구성되는 비단천과도 같은 색이다. 오방색은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에도 '靑.白.玄.黃色' 오색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오방색은 대체로 『다라니집경』이나 『대일경』 등 밀교경전에 따른다.[21] 『대일경』 3권, 「전자륜만다라행품」에는 흰색은 비로자나이며 그 다음에 붉은색– 황색– 청색 마지막은 흑색을 운포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흰색은 대일여래의 색이며, 붉은 색은 보당여래가 보리심을 내어 도를 밝힌

21 태경스님, 『조상경』 (운주사, 2006), pp. 64–68.

것으로 제이(第二)가 된다. 第三은 황색 , 第四 푸른색은 무량수불의 색, 검은 색은 곡음성여래(穀音聲如來)로 명기하고 있다. 이는 불부를 상징하는 백색을 중심으로 붉은색금강부, 황색연화부, 청색 검은색(분노부) 순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5권의 「入秘密漫荼羅位品」에도 '五寶' 로서 다섯가지 방위와 색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오방과 색채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착된 듯 국가의 행사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즉 길례의식에 "牲牓은 동쪽 담의 문 바깥에 설치하는데 문을 마주보고 서쪽을 향하게 한다. 蒼牲 1마리를 앞에 세우고 靑牲 1마리는 북쪽에서 조금 비켜 남쪽을 위로하게 둔다. 다음으로 赤牲 1마리, 黃牲 1마리, 白牲 1마리, 玄牲 1마리의 순서로 매어둔다. 그리고 蒼牲 1마리는 남쪽에서 조금 비켜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한다"[22]라고 하였다. 즉 창은 검은색에 가까은 진한 남색, 창은 녹색으로 짐작되는 점에서 국가의 길례행사 때 희생에 쓰이는 동물에도 백색– 홍색– 황색– 청색– 검은색 으로 구성된 철저한 색채 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례에 명시된 채색은 오방색만 명시했을 뿐 방위는 없다. 그런데 『다라니집경』에는 길례와 같은 오방색에 방위가 명시되어 있어 주목 된다. 즉 깃발을 달면서 "동쪽에는 한쌍의 푸른색 번자, 남쪽에는 붉은색 번자, 서쪽에는 한쌍의 흰색번자, 북쪽에는 짙은 청색 번자, 중앙에는 황색번자를 매단다."[23]라고 하였는데 짙은 청색을 검은색으로 본다면 길례에서의 채색과 동일하다(표 2).

표 2 경전과 작품에 등장하는 오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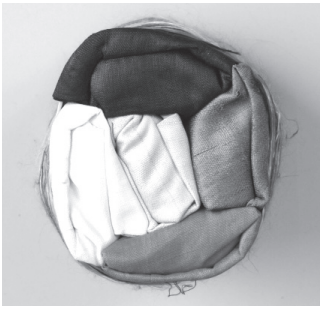
	동	남	서	북	중
경전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적 보당여래	황 연화부	청 무량수불	흑 곡음성여래	백 비로자나불
造像經一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	청 금강바라밀보살	황 보생바라밀보살	홍 연화바라밀보살	녹 갈마바라밀보살	백 근본바라밀보살
고려시대 吉禮	청	적	백	흑	황
陀羅尼集經	청	적	백	남	황
작품사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불좌상(1302)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봐상(1346)	청 방형	적 삼각형	백 원형	흑 반월형	황 원형
안정사 불좌상(고려시대)	청 방형	적 역삼각형	백 원형	남 반월형	
해인사 비로자나불상(1490)	청 방형	적 삼각형	백 원형	흑 반월형	황 원형

22 『고려사』 권59 지 13, 예, 길례 대사, 원구, 親祀儀.

23 東懸一雙碧色幡子 南懸一雙緋色幡子 西懸一雙白色幡子 北懸一雙深靑幡子 中懸四口黃色幡子

이 오방색은 실제 복장물에서 나오는 색채와도 거의 부합된다. 완전하게 개장되어 방위가 정확하게 남아 있는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의 경우 청색천(방형), 주황색천(적색, 삼각형), 백색천(원형), 남색천(검정, 반월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재 복장물에서 나온 1302년의 온양민속박물관의 은합이나 문수사의 목합에서 나온 방위와 색채에서 일치하며 이는 1490년의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은제후령통과도 정확하게 부합된다(삽도 1).

삽도 1 고려와 조선의 오보병 사례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안정사 금동여래좌상(고려)</td>
<td>온양민속박물관(고려)</td>
<td>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조선)</td>
</tr>
</table>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에서는 오방과 오색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라니집경에 의거한 색채와 방위 개념이 고려적으로 성립되었으며 방위 개념은 그대로 복장물 의식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위를 상징하는 도형의 오보경(방형, 삼각형, 반월형, 원형)과 결합되면서 한국화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일경』이나 『조상경』「묘길상평등비빌최상관문대교왕경」 권1 등 밀교경전에 등장하는 방위와 채색 그리고 이를 따른 것으로 이해되는 조상경과는 중앙의 백색과 황색을 중심으로 한 방위에 따른 색채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표 2).

마지막은 팔엽통에 대한 검토이다. 팔엽통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문헌과 〈입물색기〉, 1322년 천수관음상의 복장원문에만 등장하는 용어이다. 현재 팔엽통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비슷한 유물이 문수사 불상이나 안정사 불상에서 나온 목합에 팔엽연화를 주서로 그리고 위에는 연자가 그려져 있는 모양의 합이 비교적 팔엽통에 제일 가깝다. 또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팔엽연화형 받침에 은제합이 올려져 있고 합의 뚜껑에 새겨진 진심종자와 팔엽에 범자가 새겨져 있는 모양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짐작된다.[24]

그런데 『大日經』 제2권 「入漫荼羅具緣眞言品」2에서는 관정에 대해 설하는 가운데 "내심의 대연화는 여덟개의 꽃잎에 꽃술과 수염이 있으며 사방의 잎 가운데에...."라 하고 이어서 팔엽을 설명하면서 "네 분의 반려보살과 4 봉교자를 안치하며 이는 총지자재, 염지, 이익심, 비자보살, 잡색의, 만원, 무애, 해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大日經』 5권 「입비밀만다라위품」에도 만다라를 설명하면서 "八葉大蓮華王을 나타내야 하고 줄기가 움트고 꽃술을 편 비단무늬의 단아하고 묘한 곳 가운데에 계신 여래는 모든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신 몸으로.'라고 설명하고 있다.[25] 즉 팔엽대연화는 꽃술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주존인 대일여래가 그 중앙에 앉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 여덟잎의 연화는 복장물의 팔엽통으로 형상화되어 고려시대에 불상 안에 안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Ⅴ. 복장물의 형성과 의미

우리나라 복장물의 시원과 형성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장물에 등장하는 물목들은 사실 이전 사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에 포함된 물건들이다. 예를 들어 사찰의 진단구에 향과 오곡이 포함되며, 754~755년의 사경제작의식에는 향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리공양구에도 들어 있는 물목이다. 즉 766년 석남암수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에서 나온 사리구라든지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발원문과 같은 기록을 적거나 사리, 경전류, 곡식 등의 물목 구성에서 복장물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도 7). 문경 鳳棲里탑의 사리장엄구에는 목합 안에 수정제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사리를 넣는 사리병이 나왔으며 감색천과 문양천 등의 직물과 수정구슬, 활석제, 향목 등이 공양물로 들어가 있었다.[26] 그리고 보광사 보살상에서는 보협인다라니경이 나왔는데 이는 고려초기 월정사 구층석탑에서도 나온 것으로 불탑공덕경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경전이다.[27] 즉 탑에 들어가는 사리장엄구는 탑에서 불상으로 그

---

24 김순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은제사리합. 팔엽연화형 받침 고찰」, 『불교미술』 20(2009), pp. 37-67.

25 『대일경』6권 「百字位成品」에도 "여덟잎은 마음으로부터 생하며 연꽃은 지극히 화려하다. 원만한 월륜 가운데 더러움 없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과 같다"라고 하였다.

26 국립중앙박물관 편, 『불사리장엄』(국립중앙박물관, 1991), p. 79.

27 김추연, 앞의 논문, pp. 42-44.

도 7　영태2년명납석제사리호, 통일신라, 부산박물관

성격이 변화되고 사리장엄구 형식은 복장물로 합쳐지면서 복장물목이 형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불탑과 불상에 넣는 복장물목이 서로 결합되어 있음도 알 수 있는데 석남암수 석조비로자나불상의 대좌에서 사리기가 나온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는 불탑에서 불상으로 의례적 공간이 옮겨간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불탑에서의 사리기 납입이 복장물이 안립되는 고려중기 이후 다소 사례가 적어지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 위에 복장물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각종 도량들 그리고 도량의식 등과 결합되면서 고려만의 독창적인 복장의식과 복장물목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도량의식에 대해서는 『대일경』, 『금강정경』, 『다라니집경』 등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복장물은 복장의식에서 시작되며, 복장의식은 도량결계와 같은 의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량결계 의식에는 승려의 진언, 염송과 함께 많은 다라니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다라니는 복장물의 주요 물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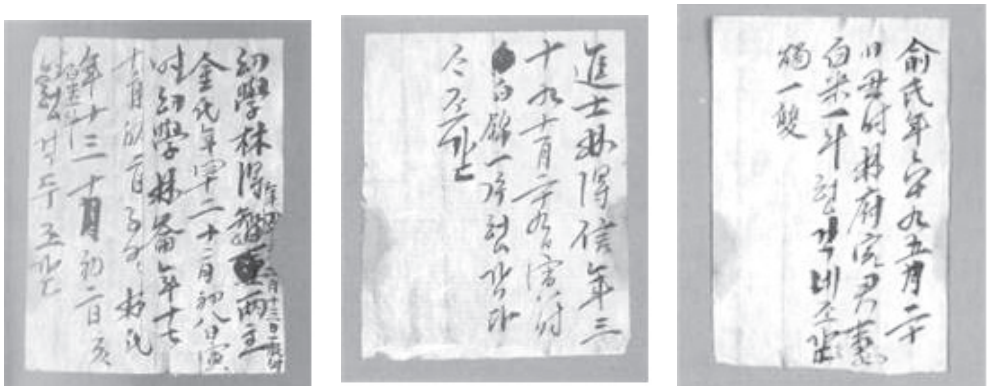
범자총지집에는 '大毘盧遮那佛成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多羅尼'라고 쓰여 있다. 이는 『대일경』에 언급된 비밀다라니 즉 진언이다. 이는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도 1228년(고종15) 판각된 〈범서총지집〉일부가 나왔으며 조선시대의 1490년에 납입된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복장물에도 포함되어 있다.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즉 『대일경』은 중기밀교의 근본 경전으로 의천의 『敎藏總錄』에도 수록되어 있는 밀교경전이다. 이 경전에 보이는 7일작단법의 의식에 사용된 물목과 복장물 물목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다라니집경』의 마지막에는 「불설장엄도량금공양구지료탁법」이 첨부되어 있다. 이는 도량의식에 사용되는 공양구 목록으로 여기에는 큰 거울 28면, 작은 거울 40면, 유리포화 4백매, 오색줄 20냥 금2냥 은2냥 산호2냥 호박2냥 진주2냥 도곡, 소두, 소맥, 대맥,

청과 오곡 등이 열거되어 있다.[28] 그리고 '이 물건들은 구걸하여서 한되를 얻어야하며 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공양에 의해 납입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복장발원문에 등장하는 시주질에 시주자 이름과 함께 시주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행위와 부합된다. 예를 들어 광주 자운사 아미타불의 1611년 시주자 목록 가운데 ' 幼學林得智 幼學林侖...흰쌀1말, 헝겊2조각' '進士 林得信 흰색비단1조각, 헝겊5조각', 兪氏 헝겊4조각, 燭一雙 '인들이 등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도 8).[29] 더불어 ○○시주, ○○시주 등 품목과 시주자들의 이름을 같이 명기한 것과도 동일하다.

공양구 가운데 도량의식에 사용되었던 거울이 주목된다. 거울은 불복장물에 간혹 발견되는데 의람사 불상에서는 여러 개의 거울이 나온바 있고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동학사 삼불상 등에서도 나온 바 있다(도 9).[30] 이에 대해 『금강정경』 4권에는 '다음에 다시 거울을 잡고 그로 하여금 관조하게 한다. 제법의 性相을 설하기 위하여 이 게송을 읊는다'라고 하여 제자로 하여금 거울 마주보게 하는 것에 대해 설하면서 거울이 사용되고 있으며, 의식의 마지막에 관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라니집경〉 도량입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화제에서부터 아사리, 의식에 참가



도 8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복장내 시주자 물목, 1611년

---

28 金銅鈴帶四十八道(各長七尺) 大珮二十八道(各長六尺) 小珮二十八道(各長四尺) 大鏡二十八面(各闊一尺) 小鏡四十面 琉璃泡華四百枚(各方圓一尺者) 綵色大幡一百尺者二十四口(四十九尺亦得新好者) 雜綵幡二百二十口(長一丈新好者) 真珠二百條(各長五尺) 朱網闊四尺長一丈(八扇) 金銀瓶四十六枚(受一升者) 大銅楪四百枚(一尺五寸面者)小銅楪二百枚(各七寸者) 銀盤四面(各二尺五寸者) 雜金銀器八十枚 金盤四面(闊二尺五寸者) 金銀砂羅四十八枚(闊一尺以上者) 金杓一枚 銀杓一枚 銅香鑪寶子六具 金香鑪寶子一具 金銀娑羅二枚(受一升者一金一銀) 七寶金銀蓮華五樹(各高四尺新好嚴飾) 雜綵假華樹一百(各新好者) 銅燭檠十二枚 金銀盞屈卮等四十八枚 五色蠟燭十條 銅澡罐二十六枚(各受五升已上) 淨布手巾三 澡豆一升 皂莢四十枚 炭灰一升 楊枝一束 『다라니집경』 12품

29 修德寺槿域聖寶館,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수덕사근역성보관, 2004), p. 105.

30 (재)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동학사, 공주시,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 12.

의성 운람사

대구 파계사

공주 동학사

도 9 복장물에서 출토된 동경

한 일반민에 이르기 까지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 진언으로 축원을 하는 대목이 있다.

> 국주인 **황제와 황후를 위하여** 향과 꽃 등의 모든 물건을 태워 공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진언을 49번 송하여 채운다 이어 **태자와 모든 왕비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공양하고 또한 진언을 만아흔아홉번을 송하라 그리고 **대신과 문무백관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공양하고 역시 진언을 49번 송하여 채운다. 또한 역겁과 과거와 현재 동안의 모든 **스승과 부모들을 위하여** 공양하고 진언을 49번 송하라. 이어 **사방의 모든 시주를 위하여** 공양하고 (후략)[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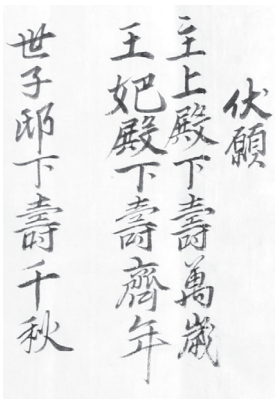
그런데 이 다라니집경에 쓰여진 축원의 순서와 내용은 복장발원문에 등장하는 관용구와 비슷하다(표 3참조). 1322년 천수관음상의 발원문이라든지 1346년 장곡사 금동여래좌상 등에는 황제부터 왕, 문관들의 계급적 순서대로 축원을 하고 있으며 원이 망하는 1368년 이후에는 주상전하가 맨 앞에 등장하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발원문의 '文虎百僚' '滿國文武增添祿位' '文武官僚' '兩府百官' 즉 대신과 문무백관 까지 축원하는 이 어귀가 고려시대에만 등장하는 점도 특징이며, 조선시대에는 '主上殿下萬萬歲 王妃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齊年' 같은 관용구로 정착하게 하면서 일상화되고 보편화된다(도 10).

1388년 자운사 불상의 경우 主上殿下와 兩大殿下 두 명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1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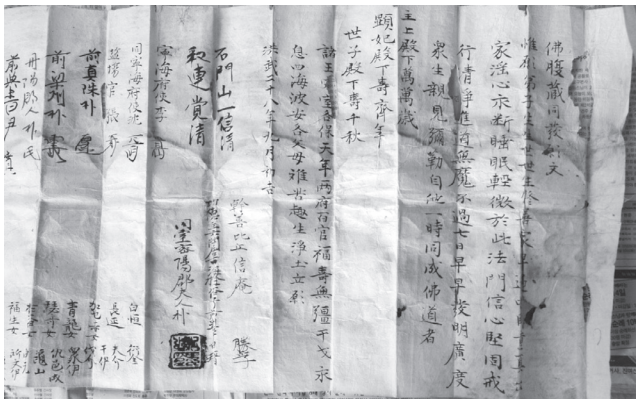
31 如是次第總周遍竟次為國主皇帝皇后。燒香華等諸物供養。為誦呪滿四十九遍。次為太子諸王妃主。如是供養。亦誦呪滿四十九遍。次為大臣文武百官。如是供養。亦誦呪滿四十九遍。次為歷劫過現諸師一切父母。供養誦呪四十九遍。次為一切業道諸官。供養誦呪四十九遍次為十方一切施主。供養誦呪四十九遍。次為十方盡空法界六道四生八難八苦一切眾生。供養誦呪四十九遍。次為阿闍梨自身。供養誦呪。滿足二十一遍次為道場處主人合家『다라니집경』12품

표 3 관용구가 등장하는 14세기 불상 발원문

연대	불상 명칭	내용
1322	천수관음상	皇帝陛下統御萬年 大尉王殿下壽千秋 當今王主上保位天長文虎百僚各疆齡干戈
1322	개운사 목조여래좌상	皇帝陛下萬萬歲
1346	장곡사 금동여래좌상	皇帝萬歲國王千秋 滿國文武增添祿位
14세기	자운사 목조여래좌상	主上殿下壽千秋 兩大殿下壽無疆 文武官僚忠貞奉國
1395이전	장륙사 건칠보살좌상	主上殿下萬萬歲 賢妃殿下壽齊年 世子殿下壽千秋 諸王家 室各保天年兩府百官福壽無疆干戈永息四海波安



도 10 조선시대 발원문의 축원문구



도 11 장륙사 건칠보살상 발원문, 1395년, 경상북도 영덕

년 8월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 이성계로 인해 창왕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상왕으로 추대된 시기와 부합된다. 창왕은 주상전하, 8월에 물러난 상왕인 우왕과 부인이자 창왕의 어머니인 근비이씨를 양대전하로 지칭한 것이다. 즉 발원문 형성 초기인 고려시대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발원문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덕 장육사 발원문의 경우 세자저하가 아닌 세자전하로 표기한 유일한 사례이다(도 11, 표 3).

『다라니집경』 12품에는 도량이 끝난 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짓고 있다. 즉 "도량을 해산하는 날 그 불전 앞에 놓았던 물건은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반야 앞에 놓았던 물건은 반야경과 그 밖의 모든 경들을 베껴 쓰는데 사용하며 모든 보살 앞에 놓았던 물건은 보살상에 관계되는데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전 앞에 있었던 모든 물건은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보살 앞에 있었던 물건은 보살상에 사

용하라는 뜻은 그대로 복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도량의식에 사용한 모든 물건은 다른 곳에 이용하면 안 되며 반드시 불상에 넣으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오방에 진언게송과 의식 등 청정한 도량의식을 통해 변화된 물목들을 다시 불상 안에 넣음으로서 그 신앙이 이어짐은 물론 불상은 또 다른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나라 복장물 관련 문헌기록과 대표적인 복장물 그리고 경전과 비교하여 물목의 형성과 그 의미를 살펴 보았다. 불복장의 시원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진 탑 사리장엄구에서 나온 물목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점에서 탑 사리장엄구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사찰에서 행해졌던 도량 의식과도 결합하였을 가능성도 고찰해 보았다. 복장물과 납입의식은 이후 조선시대에는 거의 정례화된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나라 만의 독창적인 의식으로 발전되면서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불복장과 의식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불상에 복장물을 넣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불상의 장엄함과 더불어 그 내부에 넣는 복장물에 대한 공덕과 영험의 중요성에 대해 문헌기록에 남겼다. 그리고 이로서 얻어지는 공덕이 꽤 큰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영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전에는 '공양하면 3업의 묵은 재앙을 없애고 항상 안락을 얻게 되며 지은 모든 죄를 소멸시킨다' '지은 모든 나쁜 죄를 없애어 모두 소멸시킬 것이니 아무도 능히 악업의 과보를 받게 할 수 없다' '의복과, 7보, 오곡, 음악을 공양하면 시주가 3업의 묵은 재앙을 모두 없애고 항상 안락을 얻게 된다.' 라고 하여 시주로서 얻어지는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다.[32] 이러한 개념은 당시 사람들도 믿고 있었던 듯 1330년의 일본 관음사 동조관음보살상의 결연문에는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것이며 후세에서는 함께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이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33]

불복장은 불상의 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 포함하고 있는 신앙과 사상 그리고 종교 의식과 의례 등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순

32 "將諸衣服及以七寶五穀音樂施用供養. 悉除施主三業宿殃常得安樂" 『다라니집경』 12품.

33 정은우, 「서일본지역의 고려불상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동악미술사학』 14(2013), pp. 79-81.

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전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었다. 즉 복장물은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결계의식에서 시작하여 이를 주도한 아사리에 의한 주문과 염송, 장엄한 의식 속에서 생명력있는 영적인 종교적 신앙물로 부처의 몸 속에 안립되었으며 이는 당대 신앙의 완성체라 할 수 있다.

불복장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 비해 근래에 연구성과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 백점에 달하는 그 수와 중요성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편으로 이에 대한 학계와 불교 종단 내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조사된 국내, 외의 모든 복장물의 물목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국과 일본의 복장물을 조사, 정리하여 그 차이점 및 공통점을 파악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의 독창성을 밝히고 사상 및 신앙의 형태를 밝히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Key Words)_** 복장(Bokjang), 복장물목(Sacred Objects included inside the Buddhas's Body), 고려시대(Goryeo), 오보병(Five Treasure Bottles), 발원문(Written Prayer)

▌투고일 2015년 5월 2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5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27일 ▌

참고문헌

1. 사료·문집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文宗實錄』
『成宗實錄』
『世祖實錄』
『太宗實錄』

2. 보고서·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14
동아대학교박물관·송광사성보박물관, 『순천 송광사 관음보살좌상 복장물』, 2012.
동학사·공주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 2012.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편,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온양민속박물관,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계몽사, 1991.
허흥식 외,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3. 도록 및 단행본

국립대구박물관,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 2013.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1991.
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海印寺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2008.
수덕사근역성보관,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2004.
월정사성보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도록』, 2002.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태경, 『조상경』, 운주사, 2006.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天聖山 觀音寺 木造觀音菩薩坐像』, 2010.

4. 논문

김순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은제사리합·팔엽연화형 받침 고찰」, 『불교미술』 20, 2009, pp. 37-67.

김추연, 「한국 탑내 봉안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민영규,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14·15, 1966, pp. 237-247.

이선용, 「불복장물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61, 2009, pp. 77-104.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정수복장」,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이승혜, 「고려시대 불복장의 형성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85, 2015, pp. 71-100.

이승혜, 「불상의 성물 봉안」, 『정신문화연구』 38, 2015, pp. 31-62.

정은우,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2010, pp. 43-71.

_____, 「1383년명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물」,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6, 2011, pp. 11-36

_____, 「서일본지역의 고려불상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동악미술사학』 14, 2013, pp. 73-93.

국문초록

불복장은 불상의 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려시대의 문헌 기록인 李奎報(1168~1241)의 「洛山觀音腹藏修補文幷頌」, 閔漬(1248~1326)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權近(1352~1409)의 「釋王寺堂主毗盧遮那左右補處文殊普賢腹藏」 그리고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입증된다. 위의 기록에는 腹藏이라는 명칭은 물론 腹藏物目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불상의 장엄함과 더불어 그 안에 복장물을 넣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복장물을 넣음으로서 얻어지는 공덕과 영험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복장물 납입이 유행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동안 고려시대의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 사례는 약 10여건 정도 확인된다. 그 중 1346년 제작된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에서 나온 〈彌陀腹藏入物色記〉에는 복장물목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의 불상에서 나온 물목과도 정확하게 합치되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최근 개봉된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을 통해 복장물이 불상에 안립된 순서라든지 복장물목 그리고 오방색과 방위 등이 정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이미 개봉된 다른 불상의 복장물과도 공통점을 보이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즉 이러한 전통이 고려시대에 이미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복장의 시원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진 탑 사리장엄구에서 나온 물목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점에서 탑 사리장엄구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며, 사찰에서 행해졌던 도량 의식과도 결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도량의식을 베풀면서 의식과 물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佛說陀羅尼集經』 12品, 「佛說諸佛大陀羅尼都會道場印品」에 나오는 도량의식과 유사성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복장물의 핵심인 五寶甁이라든지 발원문의 축원순서, 시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까지 비슷한데 이는 경전에 대한 이해 속에서 복장물이 성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장물은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결계의식에서 시작하여 이를 주도한 아사리에 의한 주문과 염송, 장엄한 의식 속에서 영적인 종교적 신앙물로 부처의 몸 속에 안립된다. 불상 또한 복장물의 안립과 그 의식을 통해 비로소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복장물은 그 시대의 불교 사상과 신앙은 물론 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Formative Backgrounds of Sacred Objects Stored in Buddhist Images of the Goryeo Period

Jeong Eunwoo *

Bulbokjang (佛腹藏) refers to sacred objects stored inside Buddhist images. This tradition is known to have originated in the Goryeo dynasty. This practice is verified in a number of sources of the Goryeo dynasty: the *Naksan gwaneum bokjang subomun byeongsong* (洛山觀音腹藏修補文幷頌, Record and praise for repairing an Avalokiteśhvara at Naksansa by re-stocking objects inside it) by Yi Gyubo (李奎報, 1168-1241), the *Gukcheongsa geumdang jubul seokgayeorae sari youngigi*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Record on the numinous relics of the Śākyamuni Buddha in the golden hall of Gukcheongsa) by Min Ji (閔漬, 1248-1326), and the *Seogwangsa dangju birojana jwaubocheo munsu bohyeon bokjang* (釋王寺堂主毗盧遮那左右補處文殊普賢腹藏; Storing objects inside the Buddha Vairocana and the bodhisattvas Mañjuśrī and Samantabhadra of Seogwangsa) by Gwon Geun (權近, 1352-1409). The objects enshrined in Buddhist statues and their significance we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above sources. It suggests that the Goryeo people considered the magnificence of the Buddha statues as well as the rite of placing objects inside the statues as being highly important. They believed the act of inserting objects inside the Buddhas would accrue virtuous deeds and produce miracles.

Approximately ten sets of sacred objects have been so far discovered in Buddhist statues of the Goryeo period. Among them, a gilt-bronze seated Amitābha Buddha made in 1346 at Munsusa in Seosan, yielded a record titled Mita bokjang immulsaekgi (彌陀腹藏入物色記, Record of the list of objects stored in the Amitābha Buddha), which describes in detail objects inside in the Buddha and exactly conforms to the objects found inside other Goryeo-period

* Assistant professor, Dong-A University

Buddhas. Also, a gilt-bronze seated Buddha at Anjeongsa in Tongyeong, which was recently examined, confirms the order of the installation of sacred objects inside the Buddha statute, a list of the objects, the colors of the five directions (center, north, south, east, and west), and a directio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these object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ose from other Buddhas previously studied. In other words. This show that the tradition of including sacred objects inside the Buddha's body had been well-established in the Goryeo dynasty.

The practice of installing sacred objects inside Buddhist statues probably originated from the adaptation of a magnificent container preserving the relics of the Buddha in a pagoda, since such articles display similar features of those from relinquaries of pagodas dating back to the Unified Silla period. There is also a high possibility that the articles were combined with the rite of *Bodhi-mandala* (a sacred place where the *manda* [essence] of enlightenment is present and practiced) performed at a Buddhist temple. The account of the chapter *All Buddhas' Great Dhāraṇīs and Objects to Be Used for the Rite of Bodhi-mandala* (佛說諸佛大陀羅尼都會道場印品) of the *Tuoluonijijing* (陀羅尼集經), elaborates on the rite of *Bodhi-mandala* and the list of objects to be used for it, highlighting that the ritual and the objects show similar characteristics−in particular, including the emphasis on the five treasure bottles that are the most important objects retained in the body of the Buddha, directions for the order of reciting the written prayer, and the importance of a donor, or the act of a person who makes offerings to a Buddhist monk or a temple. Thi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act of placing sacred objects inside the Buddha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Buddhist scriptures.

Sacred objects as spiritual and religious articles are enshrined inside the Buddha sculpture in a solemn rite where an *ācārya* (teacher) recites a mantra and sutra, where the ritual begins with drawing a boundary (to eradicate obstacles to the practice of the Buddhist way) to clean the sacred place for attaining enlightenment. While the placement and separation of sacred objects inside the statue through a ritual bring vitality to the Buddha, the sacred objects included inside the statue are materials of importance in studying the ritual as well as Buddhist faith.